

『방언』에 수록된 北燕·朝鮮洌水지역 입말 단어 𪛗에 대한 분석

정재남*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국문초록

기원 전후 前漢 왕조 말기에 편찬된 중국 최초의 ‘지역어휘 자료’인 『방언』에는 그보다 약 1세기 전에 합병된 고조선 왕국의 역사적 영역이었던 北燕지역 및 朝鮮洌水지역 어휘가 수록되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선행연구에서 분석대상 어휘를 선정한 기준에 따르면,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 연고지역 어휘는 기준에 알려진 60례(표기문자 기준) 외에 𪛗 1례가 추가되어야 타당하다. 『방언』 권8 제4조에 수록된 ‘알을 품은 닭’이라는 뜻의 抱 및 ‘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溼을 북연 및 조선열수지역의 공통어휘로 포함시켜 분석하면서, 같은 조목에서 함께 수록된 ‘새끼 새와 병아리’를 뜻하는 𪛗를 굳이 배제하여야 할 언어학적 이유 및 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조선 연고지인 북연 및 조선열수지역에서만 사용된 『방언』의 𪛗는 당시 고조선 연고지 기층 원주민이 사용 중인 입말을 『방언』 편찬자가 발음과 뜻이 같거나 유사한 한자를 차용하여 채록한 記音字 내지 表義字 단어로 볼 수 있는 논거가 다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하겠다.

■ 주제어 ■ 揚雄, 方言, 𪛗, 朝鮮洌水, 北燕, 고조선, 兩層言語, 記音字, 表義字

* kogurian@naver.com

1 서 설

『方言』은 前漢 말기 AD 1세기 초에 언어학자 揚雄(BC 53~AD 18)이 당시 황제 成帝의 명에 따라 27년에 걸쳐 前漢 왕조 영토 내 어휘를 수집·편찬한 現傳 最古의 ‘지역어휘 사전’이다. 『방언』은 AD 1세기 초 편찬 당시 모두 15권이었으나 현재 13권이 전해진다. 본고 분석의 기본텍스트인 『方言校箋』(周祖謨 校箋, 1993)에 의하면 13권, 676개 항목, 총 12,042자로 구성되어 있다. 『방언』에는 中原 일대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漢語 어휘는 물론 역대 漢族 정권에 편입된 東甌·南越 및 고조선 등 非漢族 지역의 입말[口語]¹⁾ 어휘도 다수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본래 고조선의 ‘서방 영토 2천여리’²⁾이었으나 BC 3세기 초 燕國과의 전쟁으로 漢人 정권 영토에 편입된 ‘北燕’³⁾ 지역의 어휘 55례(표기문자 기준)와 함께, BC 108년 고조선 멸망 당시 漢郡縣⁴⁾이 설치된 주요 영역으로 추정되는 ‘朝鮮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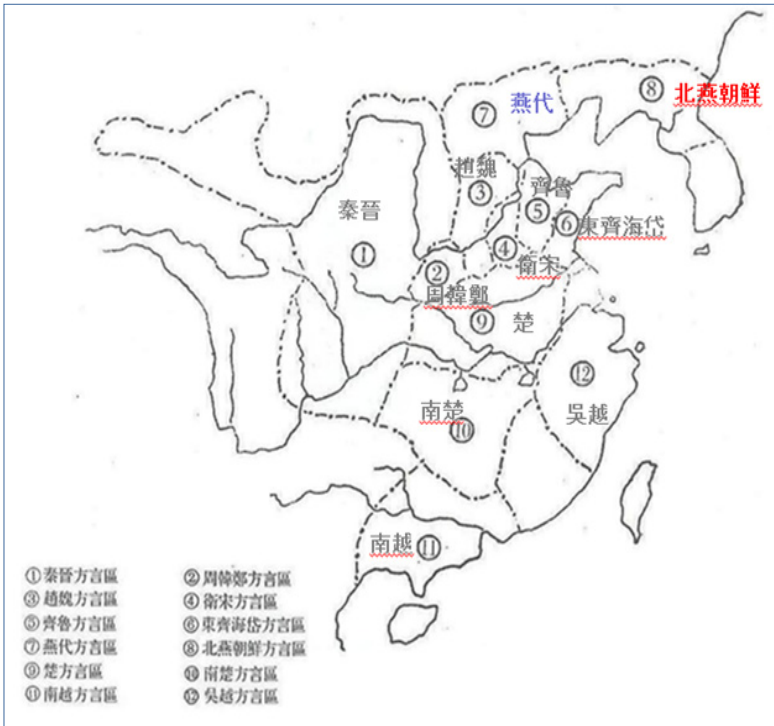
1) 揚雄은 지인 劉歆과 주고받은 서한인 「揚雄答劉歆書」에서, 본인이 27년에 걸친 『방언』 편찬 과정에서 각 지역 어휘를 조사, 수집하는 데 있어 당시 전국 각지에서 수도 長安을 오가던 회계 담당관리인 ‘上計’와 지역 추천재인 ‘孝廉’ 및 수도를 지키던 內軍 병사들에게 출신지 방언을 물어보고 정리하여 당시 각지에서 실제 사용하는 口語를 수집, 정리한 내용이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華學誠, 2006, 1031쪽)

2) 『三國志』 권30 「烏丸鮮卑東夷傳·韓傳」 “燕乃遣將秦開功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연이 이에 장군 진개를 파견하여 그(고조선의) 서쪽을 침공하였으며 2천여 리의 땅을 얻었는데,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으니 고조선이 마침내 쇠약하게 되었다).

3) 『방언』의 언어구역인 ‘北燕’은 ‘燕과 朝鮮의 사이’(燕和朝鮮之間)로서, BC 3세기 초 燕國이 東胡 및 고조선과의 전쟁을 통해 공취하고 새로 설치한 上谷郡·滌陽郡·右北平郡·遼西郡 및 遼東郡 등 소위 燕五郡을 지칭한다.(華學誠, 2006, 1029쪽) 『방언』에는 북연의 지명으로 ‘北燕’ 외에도 燕之北鄙, 燕之外郊, 燕代之北鄙, 燕之東北 및 北燕之外郊 등 다양한 별칭으로 46개條目中에서 47번 표기되었다.

4) 『史記』 권115 「朝鮮列傳」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 復攻吏. 左將軍使右渠子長降, 相路人之子最, 告諭其民, 誅成巳, 以故遂定朝鮮, 爲四郡.”(元封 3년(B.C.108) 여름, 尼谿相 參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右渠를 죽이고 항복하여 왔으나, 王險城은 함락되지 않았다. 죽은 우거의 大臣 成巳가 또 (漢에) 反하여 다시 軍吏들을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長降(降)과 相 路人의 아들 最로 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成巳를 죽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四郡을 설치하였다.)

水’⁵⁾지역의 어휘 32례(표기문자 기준)가 수록되었다. 북연지역과 조선열수지역은 같은 말 27례를 사용한 공통 언어권이었기에, 현대중국의 주류 역사언어학계는 두 지역을 하나의 언어권으로 묶어 ‘북연·조선 方言區’로 별도 분류하고 있다(林語堂, 1927, ; 劉君惠·李恕豪·楊鋼·華學誠, 1992: 105~106 등).



<지도> 『方言』에 나타난 前漢代の 「方言區劃圖」.

(출처 : ‘圖一: 西漢方言區劃圖’ 李恕豪(2002),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40쪽)

5) 『방언』에는 ‘朝鮮’ 지명이 26차례, ‘涑水’ 지명이 21차례 수록되었는데 ‘涑水’ 는 예외 없이 ‘朝鮮’과 병기되었다. 따라서 ‘涑水’는 ‘朝鮮’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방언』의 ‘朝鮮’과 ‘涑水’ 두 지명을 하나로 합쳐 관행적으로 ‘朝鮮’지역으로 통칭한다.

『방언』이 편찬되던 기원 전후 시점에 이 지역의 정치적 사정과 그에 따른 언어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조선 영토의 ‘서방 2천여 리’이었던 북연지역에 燕五郡 설치 및 고조선의 ‘동방 영토’이던 조선열수지역에 漢四郡 설치 등을 계기로, 두 지역에 대하여 燕-秦-漢 왕조로 이어지는 漢人 정권의 장기간에 걸친 행정통치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정치적 우세언어로서 上層언어인 漢語의 본격적인 침투 및 전파가 계속 이루어졌을 것이며 下層언어인 고조선 연고지 기층 원주민 언어가 함께 사용되는 ‘兩層言語(diglossia)’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언어 상황이 『방언』에 나타난다(정재남, 2024, 72~73쪽).

『방언』에 나타나는 양층언어 현상에서 고대 동아시아지역 기층 주민들이 자신의 母語에 대한 언어충성도가 매우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보인다. 즉, 북연·조선(열수)지역이 하나의 별도 언어권으로 분류되는 언어 상황은 북연지역과 조선(열수)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연지역은 동으로 조선(열수)지역과 연결되고 서로는 燕·代지역과도 연결되었지만, 燕·代지역과는 공통단어가 아예 없거나 많아야 2례⁶⁾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조선의 ‘서방 영토 2천여 리’였던 북연지역이 BC 3세기 초에 燕에 편입된 이후 『방언』 편찬 당시까지 약 3백 년 기간에 걸쳐 燕지역과는 같은 漢人 정권의 통치권에 속해 있었음에도 ‘언어 斷層(linguistic fault line)’ 현상을 보이면서 소원한 관계로 나타난다(정재남, 2017, 31쪽). 『방언』의 북연지역은

6) 『방언』에 표기된 지명(“靑”, “幽” 및 “東北” 등)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해석(燕 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북연과 燕·代 방언구 사이의 공통단어가 전혀 없거나 墳(1-24 : 靑幽之間)과 鞞角(4-44 : 東北朝鮮洌水之間) 2례만으로 보기도 한다.

BC 108년 조선열수지역도 전한에 편입되면서 다시 하나의 통치권에 속하게 되었는데, 약 2백 년 간 행정상 격리되었어도 많은 공통어휘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대 동아시아지역 주민이 자신의 모어에 대한 언어충성도가 높았던 또 다른 사례는 『방언』의 ‘燕·代 방언권’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원래 燕의 부용국에 가까웠던 ‘代’는 BC 476년 趙에 의해 멸망하고 趙 武靈王이 代郡을 설치하여 장기간 통치하였다. 이후 진시황의 중국통일(BC 221년)까지 약 250 여년 간 그리고 거의 5세기가 지나 기원 전후 『방언』이 편찬될 당시에도 언어적으로 代지역의 어휘는 趙보다는 여전히 燕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의 代지역 어휘는 모두 8례인데, 그 중 7례가 燕지역과의 공통단어이며, 趙지역과의 공통단어는 4례다. 代지역에서만 단독 사용된 단어는 없다. 이처럼 代지역은 燕지역과 언어적으로 가까웠기에 ‘燕·代 방언구’로 별도 분류된다.

한편, 『史記』, 『漢書』 및 『三國遺事』 등 기존 한중 문헌사료에 기록된 고조선지역의 말은 고조선의 지명과 인명, 관직명 등 거의 모두 고유명사로 모두 30례 미만이며(7) 동사·형용사 및 사물에 관한 일반명사 등 순수한 언어 영역의 實辭 어휘⁸⁾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방언』에 수록된 북연·조선(열수)지역의 實辭 어휘 60여례는 기원 전후 및 그 이전 고조선 연고지인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 및 한반도 중북부지역의 언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1차 언어자료라고 할 수 있다.

7) 기존 문헌사료에 전해지는 고조선 관련 국명은 發朝鮮과 朝鮮, 그리고 지명으로는 王險, 險濱, 涇水, 涇口, 尼谿, 三危太伯, 太白山, 阿斯達, 白岳, 弓, 忽山, 今彌達 및 藏唐京 등에 그친다.

8) 王彩琴(2011, 139~140쪽)에 의하면, 『방언』 내 북연·조선지역 어휘는 품사에 따라 일반명사 26례, 동사 24례 및 형용사 11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 국어학자 홍기문은 ‘조선어의 계통 문제’ 연구에서 일찍부터 중국 고문헌 자료인 『방언』 연구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⁹⁾

이 저서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 나라와 그들의 언어 관계를 서술하면서 이 나라들은 다 하나의 혈통을 잇고 같은 말을 쓰면서 존재하여 왔음을 지적하고 고대 동방의 각 종족과 그들의 언어 관계에서는 중국의 옛 문헌 『삼국지』와 『후한서』, 『량서』, 『방언』의 기록을 정확히 해독해야 할 필요성과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서 우리 민족어의 단일성을 존중하였다.

『방언』에 수록된 북연·조선지역 어휘 전체 및 개별 단어¹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하는 것은 上古漢語의 음운, 단어 연구는 물론, 한국어 祖語 및 고대 한국어 어휘 연구를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언어의 연원 분석, 당시 사회발전사 및 韓中 고대 관계사 연구 등에도 필요하다(정재남, 2024a: 83~91). 이들 어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이 지역에 전파된 漢語의 영향력 정도는 물론 이 지역의 사회문화 양상 등도 파악할 수 있는 단서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천 년간 『방언』 연구를 중국 학계가 주도하였는데 아직도 학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고 근래에는 비

9) 홍기문(1964), 「중국고문헌의 기록과 조선어의 계통 문제」, 『고등교육』 7.(김영환·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조선 언어학 연구 총서 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1996, 460쪽에서 재인용)

10) ‘어휘’는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효. 또는 전체”. ‘단어’는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지칭한다.(국립국어원 편저, 『표준국어대사전』) 본고는 『방언』 내 북연·조선지역 단어군(lexicon) 지칭시 ‘어휘’로, 개별 단어(word, vocabulary) 지칭시는 ‘단어’로 구분한다.

학술적인 의도가 개입된 의혹¹¹⁾도 있으며 특히 『방언』 내 증원 일대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분석의 역사가 일천한 북연·조선(열수)지역 어휘는 언어계통에 대한 논쟁¹²⁾을 포함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어휘의 범주에 대한 논란까지 있다.¹³⁾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방언』 본문에 조선열수지역 및 북연지역의 공통어휘로 수록된 𪗇이다. 현대 언어학계에서는 중국 학계는 물론 남북한의 선행연구자 대부분이 『방언』 권8 제4조(이하 ‘8-4’ 형식으로 표기)에 수록된 ‘알을 품은 닭’이라는 뜻의 抱 및 ‘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溷을 조선열수지역 및 북연지역의 공통어휘로 포함시켜 분석하면서, 같은 조목에서 함께 수록된 ‘새끼 새와 병아리’를 뜻하는 𪗇는 제외하였다(부록 <표 2>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방언』 내 북연·조선지역 어휘 목록」 참조).

-
- 11) 중국당국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조선이 중국인 이주집단이 건국한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요 증거로서 고조선 주민들이 상고 중국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고, 구체적으로 “동북지역 및 한반도는 원래 중국인들이 살던 곳으로 중국어를 사용하였음이 양용의 『방언』 중 ‘북연·조선 方言區’ 설정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田子魏, 2015, 55~58쪽.)
- 12) 『방언』의 北燕·朝鮮지역 어휘를 上古漢語의 갈래로 보는 견해로는 북한 학계의 리상호(1964, 「기원전 4세기 이전 고조선의 서단(西端)과 중심지에 대하여(하)」, 『역사과학』3), 중국 학계의 丁惟汾(1985, 「方言音譯」); 劉君惠·李恕豪·楊綱·華學誠(1992, 「揚雄《方言》研究」); 李恕豪(2003,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陳榴(2005, 「《方言》中“朝鮮”語詞的解讀」, 『中國語文學』45) 그리고 한국 학계의 이현숙(1995, 「《方言》中の 朝鮮·洌水之間語彙釋例研究」, 『中語中文學』17). ; 박대재(2015, 「古朝鮮의 언어구역과 燕의 동북지역」, 『先史와 古代』43)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연주(2009, 揚雄 『방언』에 수록된 조선 어휘 고찰, 『中國語文學』54)는 조선열수지역 어휘의 일부를 ‘조선어’로 보았으며, 정재남(2021, 「언어로 본 고조선의 영역 : 漢代 『方言』에 수록된 朝鮮·北燕지역 어휘의 정체성 및 지리적 범위 탐구」, 『고조선단군학』44. ; 2022, 「漢代 『方言』의 朝鮮·洌水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49. ; 2023b, 「漢代 『方言』의 北燕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50. ; 2024c, 「漢代 北燕·朝鮮지역 어휘 연구 : 揚雄 『方言』에 수록된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은 北燕·朝鮮지역 어휘 전체의 약 2/3인 43례를 ‘上古漢語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13) 중국 언어학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후대 훈고학 등 언어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연 어자료로서의 『方言』에 대하여 정작 한반도에서는 18세기 李義鳳의 『古今釋林』 이외에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현대 한국 학계에서는 공재석(1974)이 처음 조선지역 어휘 32례를 최초 소개한 이후 언어학 차원의 연구분석은 이연주(2009)가 조선열수지역 어휘의 언어 계통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기한 것에 이어 정재남(2017)이 북연지역 어휘까지 고조선 연고지의 어휘 범위에 포함시켜 일련의 분석 결과를 연속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𪗇를 조선열수지역 및 북연지역의 공통어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석 대상에서 굳이 배제하여야 하는 언어학적 이유 및 논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고는 『방언』의 𪗇(8-4)를 고조선 연고지였던 조선열수지역 및 북연지역에서만 사용된 어휘로 분류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연구분석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할 학술적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분석을 통하여 『방언』 연구사 및 연구 현황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에서 𪗇의 분류

1) 『방언』 원문 내용

『방언』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어휘를 수집·분류·정리하고 해석한 책으로서, 먼저 같은 의미를 갖는 말을 나열하고 이를 당시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通語로 풀이한 후 각 말이 사용되던 지역을 밝히는 아래와 같은 형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班、徹 列也。北燕曰班，東齊曰徹。(3-21)

① ② ③

(① 班、徹은 ② ‘순서에 따라 나열하다’[列]의 뜻이다. ③ 北燕에서는 班이라고 하고, 東齊에서는 徹이라고 한다.)

즉, 먼저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모두 열거하고 그 뜻을 설명한 후에, 이를 사용하는 지역별로 해당 어휘를 적시하

고 있다. 따라서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지역을 언어지리학의 等語線(isogloss) 개념을 활용하여 함께 묶어 계속 연결하여 나가면, 漢代 방언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의 공통 어휘로 설명하고 있는 抱와 溼이 포함된 『방언』의 본문(8-4)은 다음과 같다.

雞, 陳楚宋魏之間謂之鷓鴣, 桂林之中謂之割鷄, 或曰鷄, 北燕朝鮮洌水之間謂伏鷄曰抱, 鷄子及雞雛皆謂之鷄, 其卵伏而未孚始化謂之溼.
(닭[雞]은 陳, 楚, 宋 및 魏지역에서는 鷓鴣라고 하고, 桂林지역에서는 割鷄라고 하며, 또 鷄이라고도 한다. 北燕 및 朝鮮洌水지역에서는 ‘알을 품은 닭’을 抱라고 한다. ‘새끼 새와 병아리’를 모두 鷄라고 한다, 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것을 溼이라고 한다.)

위의 본문을 분석하면, 먼저 당시 널리 이해되는 通語 격인 ‘鷄’를 사용하여 보편적인 의미를 설명하였고 이어 ‘鷄’에 해당되는 각 지역의 말을 열거하였다. 鷄에 해당되거나 관련되는 각 지역의 말로, 중원 내륙 일대의 陳, 楚, 宋 및 魏 지역에서는 鷓鴣라고 하고, 桂林지역에서는 割鷄 또는 鷄이라고 하였으며, 北燕 및 朝鮮洌水지역에서는 ‘알을 품은 닭’을 抱, ‘새끼 새와 병아리’를 통틀어 鷄, 그리고 ‘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상태’를 溼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양용은 『방언』을 편찬하면서 본문에서 각 해당 단어의 사용지역을 명기하였다. 양용 자신이 ‘鷄’와 관련하여 직접 수록한 방언단어는 표기문자 기준으로 2음절어 鷓鴣, 割鷄 등 2례와 1음절어 鷄, 抱, 鷄,

涅 4례 등 모두 6례이다. 양옹은 鷺馱에 대해 陳, 楚, 宋 및 魏지역에서 사용한 말이라고 기록하였고, 割鷄 및 饑 2례는 桂林지역의 말이라고 하였으며, 抱, 鷲 및 涅 등 3례는 北燕 및 朝鮮洌水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鷲에 대해 양옹은 抱 및 涅과 마찬가지로 北燕 및 朝鮮洌水지역의 말로 분류하였다. 『방언』의 본문에서 양옹이 鷲만을 달리 취급하거나 다르게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내지 논거를 찾기 어렵다.

2) 선행연구에서 鷲에 대한 분류

(1) 전통 훈고학에서 鷲의 분류

『방언』에 대한 후대의 연구는 晉代 郭璞의 『방언·注』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이후 청대 고증학 및 聲韻學의 발달과 더불어 『방언』에 대해서도 戴震(『方言疏證』), 王念孫(『方言疏證補』), 錢繹(『方言箋疏』) 및 盧文招(『重校方言』) 등 여러 훈고학자가 문헌 용례 및 음운 분석을 통한 校勘을 하였다. 이러한 『방언』 교감의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져 周祖謨(『方言校箋』) 및 華學誠(『揚雄方言校釋匯證』)이 교감한 『방언』의 새로운 판본을 출간하였다. 이들이 교감한 『방언』의 여러 판본 본문 및 교감 기록 등에서 鷲를 抱 및 涅과 함께 北燕 및 朝鮮洌水지역의 말로 정리하였으며, 특별히 鷲만을 北燕 및 朝鮮洌水지역에서 사용된 어휘에서 배제하여야 할 단서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방언』 본문에 수록된 鷲의 음에 대해, 『방언』 주요 판본 편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四部叢刊』 본에는 ‘음

顧'로 되어 있으나 『方言疏證』 편찬자인 청대 戴震은 曹毅之本을 따라 '音狗竇'로 고쳤다. 또한 『重校方言』 편찬자인 청대 盧文招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揚雄方言校釋匯證』 편찬자인 현대 華學誠은 戴震을 따르지 않고 『四部叢刊』 본이 옳다고 보았다. 이처럼 『방언』의 역대 주요 판본 편찬자들이 齧의 음에 대해 각기 校釋한 것은 齧가 방언단어로서 『방언』 본문에 수록된 것 자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대 戴震은 자신이 교감한 『方言疏證』에서 齧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國語·魯語』에 “새들이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먹여 기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韋昭의 「注」에서 “먹여 살리는 것을 齧 라고 한다”고 했다. 『史記·趙世家』에 “하는 수 없이 갓 태어난 새 새끼를 잡아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史記集解』에 “綦毋邃가 말하기를 齧는 어린 참새”라고 했다. 『爾雅』에서 “갓 태어난 새 새끼를 먹이고, 병아리를 부리로 쪼아 알에서 깨어나게 한다”고 했는데, 『經典釋文』에서 “齧는 먹여줘야 하는 새 새끼로 제비, 참새 같은 종류”라고 했다. 어린 새가 태어날 때 스스로 쪼을 수 있으면 爵雀이라고 한다. ‘囓’와 ‘涿’은 옛날에는 통용되었다. ‘音狗竇’를 여러 판본에서 ‘音顧’라고 했지만, 曹毅之本을 따른다.(戴震 疏證, 2012, 81쪽)

이처럼 『방언』 본문에 수록된 齧는 같은 조문에 함께 수록된 여타 단어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음에 대한 주석이 다른 정도인데, 이는 『방언』 본문에 수록된 다른 단어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2) 현대 역사언어학에서 𪗇의 분류

과박 이후 『방언』 관련 연구를 주도해 온 중국 학계는 현대에 이르러 『방언』 내 각 해당 어휘를 지역별로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방언』 및 『설문해자』에 수록된 어휘를 바탕으로 漢代 언어구역을 28개 ‘방언구’로 구분한 吳吉燿(2011, 287쪽)의 선행연구를 보면, 『방언』 권8 제4조의 어휘 가운데 鷺臯는 魏지역 및 宋지역에서 사용된 말로 ‘魏·宋 방언구’의 어휘로 분류하였으며, 割鷄와 𪗇은 ‘南越 방언구’ 어휘로 분류하였다. 이어 抱 및 溼은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에서 사용된 말로서 ‘北燕·朝鮮 방언구’ 어휘로 분류하였다.¹⁴⁾ 하지만, 𪗇은 이러한 ‘방언구’별 분류 및 배정에서 배제하였는데 𪗇가 누락된 것에 대한 설명은 없다. 吳吉燿과 함께 『방언』 어휘를 언어구역별로 정리하여 분석한 王彩琴(2011) 및 王智群(2011)의 ‘北燕·朝鮮 방언구’ 어휘 분류에서도 역시 𪗇가 누락되었는데, 𪗇를 배제하게 된 이유 내지 논거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한편 『방언』의 북연지역 또는 조선열수지역의 개별 어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인 陳榴(2005), 이연주(2008, 2009, 2018) 및 정재남(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에서도 연구분석 대상에 𪗇가 누락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다만, 이연주는 본인이 번역한 戴震의 『方言疏證』 권3(2012, 489쪽) 「부록 6. 『방언』 어휘별 사용지역」에서 𪗇를 권8 제4조문의 여타 방언단어 5례와 함께 “北燕朝鮮方言區” 어휘

14) 吳吉燿(2011, 265쪽)은 『방언』에 나타나는 溼(3-6)과 溼(8-4)가 같은 자형이면서, “鷺伏卵而未孚始化謂之溼.”(3-6) 및 “其卵伏而未孚始化謂之溼.”(8-4)으로 뜻이 중복되기도 하기에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자신의 어휘 분류표에서 溼(8-4)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신 溼(3-6)을 ‘북연 조선 방언구’ 어휘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분석하고자 한다.

로 분류하였다.

또한 『방언』 내 조선열수지역 또는 북연지역 전체 어휘와 몽골어, 만주어 또는 어원국어 등 동아시아 여타 민족 언어의 동의어·유의어 간 음운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던 이성규(2018), 김양진(2018), 엄순천(2018) 및 정재남·이도학·변지원(2019)의 선행연구에서도 역시 비교분석 대상인 북연지역 또는 조선열수지역 어휘 목록에 鷓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鷓가 누락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언』 본문에서 ‘鷓’와 관련된 ‘새 새끼 및 병아리’라는 뜻으로 조선열수지역 및 북연지역의 공통어휘로 수록된 鷓(8-4)는 후대 중국 학계에서 문헌 용례 분석 및 성운학 분석 등 훈고학적 관점에서 같은 조문의 ‘鷓’와 관련된 여타 단어인 鷓, 割鷓, 鷓, 抱 및 涅 등과 동등하게 ‘지역의 말’로 취급되고 분류되었다. 이는 『방언』의 역대 주요 판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대 학계에서 『방언』의 전체 어휘를 漢代 언어구역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鷓(8-4)가 누락되었고, 鷓를 분석대상에서 배제하게 된 논거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찾기 어렵다.

이처럼 『방언』의 본문에서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에서 사용된 말로 명확히 수록된 鷓는 같은 조문에 수록된 鷓, 割鷓, 鷓, 抱 및 涅 등과 마찬가지로 북연·조선지역 어휘 일부로

분류되어야 하고 또한 이 지역의 말로서 연구분석 대상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齧에 대한 언어학적 검토

『방언』 본문에 복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에서 사용된 말로 수록된 齧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언』 이전 문헌 용례

齧가 『방언』 이전의 중국 문헌에서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국 최초 字書인 『爾雅·釋鳥』¹⁵⁾에는 다음과 같이 齧에 대해 설명하였다.

生哺齧，生嚼雜。

(갓 태어난 새끼 새를 먹이고, 병아리를 부리로 쪼아 알에서 깨어나게 한다.)

즉, 전한 이전 시기부터 齧는 ‘새끼 새’라는 의미로 上古漢語에서 사용되었다.

15) 『이야』의 성립 시기 관련, 다음 5가지 학설이 있다. 즉, ①西周 成書說(周公 편찬설: 三國 魏 張揖의 『上(廣雅)表』), ②戰國初期 成書說(孔子門人 편찬설: 後漢 鄭玄의 『駁五經異義』), ③戰國末期 成書說(何九盈의 『中國古代語言學史』, 趙振鐸의 『訓詁學史略』), ④前漢初年 成書說(北宋 歐陽修의 『詩本義』) 및 ⑤前漢中後期 成書說(현대 周祖謨의 『爾雅』之作者及成書年代之推斷, 『大公報』(1946.11.17.자)에서 “漢武帝 이후부터 哀帝와 平帝 이전까지 사이”에 성립 주장)이다. 『이야』 성립 시기를 가장 늦게 추정한 周祖謨 주장을 따르더라도, 前漢 平帝시대 (재위 BC 1~AD 5)는 양웅이 『방언』을 본격 편찬하던 때에 해당된다.

② 중국 춘추시대 8국의 역사를 나라별로 적은 책으로서 춘추시대 학자 左丘明이 저술한 『國語·魯語』에는 다음과 같이 鷩가 수록되었다.

鳥翼鷩卵

(새들이 알을 부화하고 새끼 새를 먹여 기른다.)

즉, 춘추시대부터 鷩는 ‘새끼 새’라는 의미로 上古漢語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前漢의 역사가 司馬遷이 BC 91년경 집필을 완료한 『史記·趙世家』에서 鷩가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探爵鷩而食之

(하는 수 없이 갓 태어난 새끼 새를 잡아먹으며 배고픔을 달랠다.)

이처럼 『방언』 이전 중국 문헌에서 鷩가 『방언』에서와 같은 뜻인 ‘새끼 새’로 쓰인 용례가 다수 있기에, 일단 표기문자로서 鷩라는 한자의 연원은 上古漢語에서 유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字書 및 韻書에서 鷩에 대한 설명

『방언』이 편찬된 이후 만들어진 중국의 역대 주요 字書 및 韻書 등 언어자료에 수록된 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후한대 자서 『說文解字·鳥部』에서는 鷓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鳥子生哺者。從鳥鼓聲。

(‘태어나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새끼 새(鳥子生哺者)’를 말한다.

鳥가 의미부이고 鷓이 소리부이다.)

이에 대해 청대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釋鳥生哺鷓。郭云：鳥子須母食之。生鷓雛。郭云：能自食。方言：北燕朝鮮洌水之間，爵子及雞雛皆謂之鷓。從鳥鼓聲。

(조류에 관한 것이다. 태어나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새끼 새를 말한다. 이에 대해 晉代 郭璞은 ‘새끼 새로서 반드시 어미 새가 먹여주어야 하는 종류다’라고 하였다. ‘병아리를 부리로 쪼아 알에서 깨어나게 한다(生鷓雛)’는 것에 대해, 곽박은 ‘(이런 종류의 새끼 새는) 스스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방언』에서는 북연 및 조선열수 지역에서는 새끼 새와 병아리를 모두 鷓이라고 부른다. 鳥가 의미부이고 鷓이 소리부이다.)

② 육조시대에 최초 편찬되고 북송대에 증수된 『玉篇·鳥部』는 鷓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苦豆切。生哺鷓鳥子須母食之。

(독음은 苦와 豆의 反切이다. 태어나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새끼 새이며 반드시 어미 새가 먹여주어야 한다.)

③ 송대 대표적인韻書인 『廣韻·鳥部』에서는 鷓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鳥子。亦作鷓，生而須，哺曰鷓，自食曰鷓。

(새끼 새다. 鷓으로도 쓴다. 태어나면 반드시 어미 새가 먹여주어야 하는 새끼 새를 鷓이라고 하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새끼 새는 鷓라고 한다.)

④ 송대의 또 다른韻書인 『集韻·鳥部』에서는 鷓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鷓鷓，方言爵子雞雛皆謂之鷓或作鷓。

(鷓와 鷓은 『방언』에서 새끼 새와 병아리를 모두 鷓라고 부른다. 혹은 鷓라고도 한다.)

⑤ 청대의 대표 자서인 『康熙字典·鳥部』에서는 鷓의 뜻과 용례에 대해 여러 설명¹⁶⁾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방언』을 직접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揚子方言】爵子及雞雛，皆謂之鷓。

(『양자방언』에서는 새끼 새와 병아리를 모두 鷓라고 부른다.)

이처럼 鷓는 『방언』 이후 역대 주요 자서 및 운서 등 언어자

16) 『康熙字典·鳥部』鷓【廣韻】苦侯切【集韻】韻會【正韻】丘侯切，並音寇。【揚子·方言】爵子及雞雛，皆謂之鷓。【爾雅·釋鳥】生哺鷓，生囑雛。【疏】鳥子生，須母哺而食之，名鷓，謂燕雀之屬也。鳥生子而能自哺食者名雛，謂雞雉之屬。【魯語】里革曰：獸長麇天，鳥翼鷓卵。【韋註】生哺曰鷓，未乳曰卵。【莊子·齊物論】其以爲異於鷓音。【揚雄·蜀都賦】風胎雨鷓。【後漢·王符傳】世非胥庭，人乖鷓飲。【註】鷓飲不假物，淳樸時也。又【集韻】居侯切，音蕪。又墟侯切，音穀。又古慕切，音顧。義並同。又【集韻】韻會】克角切【正韻】乞約切，並音鷓。鳥子欲出者。【說文】从鳥在鷓中，會意。”

료에서도 ‘새끼 새 및 병아리’라는 뜻으로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새끼 새라는 뜻의 鷄는 漢語의 표준어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絶代語’ 또는 ‘別國方言’ 여부

『방언』의 정식 책 이름인 『輶軒使者絶代語釋別國方言』에 나타나듯이, 『방언』 편찬자가 황제의 명을 받아[輶軒使者] 수집·정리하여 편찬한 언어자료로서, 그 대상은 시간적으로는 이미 사라진 말[絶代語]에 대한 해석[釋]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당시 전한 왕조 영토에 속한 각 지방의 말[別國方言]이었다. 책 제목에 따르면, 『방언』에 수록된 어휘는 기본적으로 ‘절대어’이거나 ‘별국방언’의 두 종류에 속한다.

먼저 『방언』의 ‘절대어’는 의미상으로 ‘전승이 단절된 말’이며, 이는 『방언』 편찬 당시에 이미 사용되지 않는 古語를 의미한다. 『방언』 본문에 “皆古今語也”(모두 옛말과 지금의 말이다), “皆古雅之別語也”(모두 고대 雅言의 다른 말이다) 및 “古謂之”(옛날에는 ~라고 말하였다)라는 표기가 나타나는데 모두 ‘절대어’와 관련된다. (王智群, 2011, 79쪽) 이처럼 『방언』 본문에 직접 표기된 ‘절대어’ 사례는 많지 않다. 북연·조선지역 어휘 가운데 ‘절대어’에 직접 해당되는 사례는 북연지역을 의미하는 ‘燕之北鄙’와 중원지역인 ‘齊楚之郊’의 공통단어로 수록된 京(1-12) 및 將(1-12)이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방언』의 책 제목 중 ‘별국방언’에서 ‘別國’의 뜻은 당시 전한 중앙조정 통제를 받는 ‘개개[別]의 지역[國]’으로 풀

이할 수 있다. 先秦 用例에서 ‘國’은 天子의 직할 통치 지역 밖(‘四方’)에 존재하면서도 천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방 및 지역을 지칭¹⁷⁾하였기에, 『방언』에서의 ‘별국’도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언’은 ‘별국’에서 사용된 ‘지역의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별국’이 현대적 개념의 주권국가가 아니듯이, 『방언』에서의 ‘방언’ 역시 현대 언어학의 ‘방언’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¹⁸⁾ 『방언』의 북연지역 및 조선지역은 『방언』 편찬 당시 시점에는 이미 한군현이 설치되어 전한 왕조의 통치를 받던 권역이었다. 따라서 畿를 포함한 북연·조선지역 어휘는 앞에서 살펴본 古今語인 京(1-12) 및 將(1-12) 두 례를 제외하고 모두 ‘별국방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⁹⁾

4) 轉語 여부

『방언』의 轉語는 상고한어 同源詞의 지역적 변이형 내지 시간적 변이형 단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방언』에는 본래 하나이었던 단어가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 지역의 차이로 인해 소리와 한자 표기가 달라진 同源語에 대하여 편찬자 양용

17) “國 : ㉔ 왕이나 제후의 봉지《周禮·天官·大宰》 ㉕ 지방, 지역 또는 고향:《周禮·地官·掌節》”(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漢韓大辭典』 권3, 452쪽.)

18) 참고로 盧國堯(『方言의涵義』, 『語言教學與研究』, 語言教學與研究編輯部, 1992)에 따르면, “19세기 말까지 중국어 방언이 의미하는 것은 각 지역의 언어를 가리켰으며, 중국어 각 방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 언어를 포함하고, 심지어 이민족 언어를 지칭하기도 했다. 방언이라는 명사는 중국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명사로 전에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언어를 말했다.”고 하였다. 또 “19세기 이전에 중국인의 마음 속에 방언은 곧 언어였다.”고 하였으며, “揚雄이 『방언』에서 수집한 어휘는 모두 서로 다른 지역의 말(異域之語)로 중국어 방언과 소수민족 어휘를 구분하지 않았다. 중국 고대에 語言, 語, 方言 등은 모두 유의어이며, 현대에서와 같이 엄격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이연주(2018), 『揚雄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지역 어휘와 이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 153쪽)

19) 이연주(2009), 『揚雄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 고찰』, 5~6쪽.

자신이 ‘轉語’라고 명명하면서 ‘轉語’, ‘語之轉’, ‘猶’, ‘若’, ‘代語’ 및 ‘古今語’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직간접으로 전어임을 밝힌 단어가 모두 54례(19개 조목)로 나타난다. 또한 후대 연구자들은 편찬자 양응이 『방언』 본문에서 밝힌 전어 사례 이외에 전어의 추가 분류를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晉代 郭璞의 『方言注』부터 청대 戴震의 『방언소증』 및 王念孫의 『廣雅疏證』 등을 거쳐 현대 華學誠의 『揚雄方言校釋匯證』에 이르는 언어학적 분석에 따라 전어로 추가 분류된 어휘는 약 70례(34개 조목)로 보인다. 이를 『방언』 본문의 전어 표기 사례와 합하면 지금까지 전어로 분류하였던 사례는 128례(56개 조목)이다.

이 가운데 북연·조선지역 단어를 찾아보면 『방언』 편찬자가 직간접으로 전어로 분류한 사례는 ‘古今語’에 해당하는 단어인 京(1-12) 및 將(1-12) 2례뿐이다. 이어 후대 연구의 전어 분류에서는 일단 譚(3-6), 鏹(5-1), 甌(5-11), 𩇛(5-27), 膊(7-15), 漢漫(7-25), 眠眩(7-25), 鷓鴣(8-9), 鷓(8-9) 및 蟪蛄(11-16) 등 10례가 전어의 사례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 12례에 대하여 『방언』 이전 문헌 용례 조사 및 연관되는 단어 간 上古音 대응 등을 통한 비판적 검증 결과에 의하면, 『방언』 편찬자 자신이 전어의 일종인 ‘古今語’로 분류한 京(1-2) 및 將(1-2) 2례 그리고 譚(3-6), 𩇛(5-27) 및 膊(7-15) 3례 등 모두 5례만이 상고한어 동원어 부류인 전어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재남, 2023a, 195~196쪽)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 결과 및 필자의 전어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 鷓(8-4)는 전어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5) 記音字 여부

『방언』의 ‘記音字’는 현대 중국학계의 『방언』 연구자가 새롭게 만든 용어로서, 『방언』 편찬 당시 기존 漢字 중에는 해당되는 글자가 없는 새로운 단어를 수록하기 위하여 발음이 비슷한 漢字를 발음기호로 채택하여 표기한 그 글자 내지 그 글자가 표시한 어휘를 의미한다. 즉, 王彩琴(2006, 2011)에 의하면, 『방언』 편찬자 揚雄이 새로운 단어를 수록하기 위해 발음이 유사한 漢字를 발음기호로 차용하여 표기한 사례가 많은데 이를 記音字라고 하였다. (王彩琴, 2006, 120쪽 ; 王彩琴, 2011, 75쪽) 이러한 기음자는 표기 대상인 해당 어휘의 의미 전달보다는 단순한 발음부호 역할에 그쳤다고 보았다. (王彩琴, 2011, 76쪽 ; 이연주, 2018, 197쪽)

王彩琴은 『방언』의 記音字 전체 어휘 519례²⁴⁾를 다시 세 가지 유형 즉, ‘上古漢語의 새로운 단어’를 표기한 ‘借音字’²⁵⁾(322례), ‘聯綿字’(171례) 및 ‘其他民族의 말’을 표기한 ‘譯音字’(26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王彩琴, 2011, 75~95쪽) 王彩琴의 상기 記音字 분류 내용을 정재남(2023c)에서 전수 검수한 결과에 의하면, 북연·조선지역 어휘 중 기음자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30례이고(정재남, 2023c, 58쪽) 이 가운데 借音字 유형 단어 14례, 聯綿字 유형 14례 및 譯音字 2례로 세분할 수 있다.

하지만, 王彩琴의 선행연구(2006, 2011)에서는 疊(8-4)가 기

24) 王彩琴(2010, 『揚雄《方言》中的記音字與方言詞』, 196쪽.)에 따르면, 『방언』에는 풀이되는 어휘(피해석자) 중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글자, 즉 단순 記音字를 통해 기록된 글자가 모두 512개, 이를 위해 사용된 記音字는 519개다.

25) 聯綿字는 連綿字 또는 聯綿詞, 連綿詞라고도 하는데, 2음절 단어 가운데 두 글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나의 뜻을 나타내며, 두 글자로 나누어지면 각기 다른 단어가 되거나 아무 뜻도 나타내지 못한다.

음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𣎵는 기음자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王彩琴은 𣎵 자체를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을 개연성이 크기에 이는 향후 별도의 독자적인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6) 表義字 여부

『방언』의 ‘表義字’는 현대 중국학계의 『방언』 연구자가 새롭게 만든 용어다. 王彩琴(2011, 18쪽)은 표의자에 대하여, 『방언』에서 사용된 문자의 뜻과 그 표기 대상이 되는 단어가 의미상으로 서로 연관되며, 의미의 연관성은 문자의 본래 의미는 물론 확장된 의미, 비유적인 의미 및 상징적인 의미 등까지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어 王彩琴(2011, 18쪽)은 이러한 표의자 사례로 단어 4례를 소개하였는데, 이 가운데 2례가 고조선 연고지에서 사용된 말인 樹(5-36) 및 樹植(7-31)이다.

牀、其杠，北燕朝鮮之間謂之樹。(5-36)

(침상(牀)과 그 침상 가로대(其杠)를 北燕 및 朝鮮지역에서는 樹라고 한다.)

樹植，立也。燕之外鄙朝鮮洌水之間，凡言置立者謂之樹植。(7-31)

(樹植은 ‘세우다(立)’의 뜻이다. 燕의 외곽지역(北燕) 및 朝鮮洌水지역에서는 무언가를 세워 놓는 것을 樹植이라고 한다.)

樹에 대해 『說文解字·木部』는 “生植之總名”(직립하여 자라는 생물의 총칭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 王彩琴은 樹의 본래 뜻이 ‘木本 식물의 총칭’이지만, 樹立 및 牀杠을 樹의 ‘확장

된 의미'로 보았다. 樹의 訓이 立이기에, 침상에 세워져 있는 牀 杠(침상 가로대)을 ‘樹’라고 하였으며, ‘세우다’라는 뜻을 樹植 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방언』의 𪗇(8-4) 역시 이러한 표의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𪗇 자체는 『방언』 이전부터 중원 일대에서 ‘새끼 새’로 사용된 용례가 다수 확인되는데, 정작 『방언』 내 ‘별국방언’의 일종으로 쓰인 사례는 전한 왕조의 전체 영역 가운데 고조선 연고지인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 만약 『방언』 편찬 당시에 𪗇가 ‘새끼 새와 병아리’라는 뜻으로 쓰인 漢語 단어였다면, 당시 전한 영역 내에서 오로지 고조선 연고지에서만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언』의 편찬자 양웅이 고조선 연고지에서 ‘새끼 새와 병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非漢語系 민족의 입말 단어를 접하고 이를 채록하는 과정에서 발음 및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한자인 𪗇를 表義字로 차용하여 『방언』에 수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同訓異表記語 여부

『방언』의 북연·조선지역 어휘 중에는 같은 條目 내에서 의미가 같으나 발음과 음절 등이 달라 서로 대립되는 소위 同訓異表記語가 11쌍 22례 수록되었다(정재남, 2023d). 예를 들어, 『방언』 내 조선열수지역 및 燕·代지역의 공통단어로 수록된 盱(2-5) 및 揚(2-5)은 공통 훈어가 雙이며 ‘둘, 눈, 눈을 올려서 보다’ 등으로 풀이된다. (戴震 疏證, 2012, 119~123쪽)

한편, 『방언』 편찬 당시 고조선 연고지인 북연지역 및 조선 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된 정치적 우세언어인 漢語와 고조선 연고지 기층 원주민의 언어가 함께 사용되던 ‘兩層言語(diglossia)’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작은 언어구역에서 사용된 동훈이표기어의 대립되는 두 개 단어는 첫째, 한어 및 기층 원주민 언어의 조합, 둘째 두 개 단어 모두가 한어 방언의 조합이거나 셋째, 두 개 단어 모두 기층 원주민 언어의 방언 조합이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방언』 내 북연·조선지역 동훈이표기어의 언어 계통을 분류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北燕·朝鮮지역 同訓異表記語의 연원·성격 분류

(밑줄은 중복분류 사례)

구분 [동훈이표기어 수 /전체 단어 수]	上古漢語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단어 [10례]	上古漢語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어휘 [14례]
朝鮮洌水지역 단독어휘 [2/3례]	-	漢漫(7-25), 賑眩(7-25)
朝鮮·北燕지역 공통어휘 [2/6례]	策(3-11)	壯(3-11)
朝鮮洌水·北燕지역 공통어휘 [8/20례]	膊(7-15), 鷓鴣(8-9)	鏃(5-1), 鉞(5-1), 抱(8-4), 涅(8-4), 鷓鴣(8-9), 鸚(8-9)
朝鮮洌水·(北)燕지역 공통어휘 [3/2례]	譚(3-6), 涅(3-6)	涅(3-6)
朝鮮洌水·燕·代지역 공통어휘 [2/2례]	揚(2-5)	盱(2-5)
北燕지역 단독 어휘 [0/13례]	-	-
北燕·東齊·海岱지역 공통어휘 [3/5례]	晞(7-15)	踰登(7-19), 隄企(7-19)
北燕·中原지역 공통어휘 [4/10례]	京(1-12), 將(1-12), 阜(5-24)	楢(5-24)

그런데 𪗇는 위에서 살펴본 동훈이표기어 유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동훈이표기어가 아니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𪗇와 뜻이 같은 단어가 없어 ‘단어 간 언어경쟁’ 역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연·조선 지역 전체 어휘의 약 1/3이 넘는 동훈이표기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역에는 ‘새끼 새와 병아리’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오직 𪗇 하나뿐이었으며, 이는 기층 원주민의 언어이거나 상고한어에서 유래된 단어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끼 새와 병아리’는 농경 또는 수렵 등에 종사하는 사회에서 기본단어에 해당되기에 본래 전승되어 온 말일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선진문물을 지칭하는 단어도 아니고 복잡한 개념도 아닌 말이기에 고조선 연고지에서 이러한 기본단어가 정치적 우세언어인 한어로 바뀌었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8) 여타 ‘방언구’와의 공통어휘 여부

『방언』 내 북연·조선지역 어휘 61례(의미 기준) 가운데 여타 漢語 方言區 및 차하위 方言區에서도 공통으로 사용하였던 어휘는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 ‘朝鮮泐水·燕·代’지역 사이의 공통단어 2례, 둘째, ‘朝鮮泐水·(北)燕’지역 사이의 공통단어 2례, 셋째, ‘北燕·東齊·海岱’지역 사이의 공통단어 5례 그리고 넷째, ‘北燕·中原내륙’ 여러 방언구 사이의 공통단어 10례 등 모두 19례이다.

이러한 언어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北燕·朝鮮지역 전체 어휘 61례(기금까지 알려진 의미 기준) 가운데 약 1/3 가량이 고

조선의 과거 역사적 활동지역이 아니었던 ‘외부 지역’과의 공통단어이며, 약 2/3는 고조선의 역사적 연고지역 내에서 사용된 단어다. 조선지역 전체 어휘 32레 가운데 ‘외부 지역’과의 공통단어는 3레(9.3%)에서 최대 5레(15.6%)²⁶⁾이고, 북연지역은 전체 어휘 55레 가운데 ‘외부 지역’과의 공통단어가 15레(27.3%)로 조선지역에 비하여 ‘외부지역과의 공통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두 배가 높다. 이 차이는 북연지역이 조선지역보다 약 2백 년 먼저 漢人 정권[燕國]의 통치권에 편입되고, 지리적으로 조선지역보다 더 개방적이면서 한어 방언권인 ‘燕·代 방언구’와 인접했던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𪛗는 『방언』의 본문에 명기되었듯이 북연지역과 조선열수지역에서만 사용된 말이며, 고조선 연고지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만약 𪛗가 상고한어였다면 하필 고조선 연고지역인 북연 및 조선열수지역에서만 사용되면서 전형적인 한어 사용권이었던 ‘燕·代 방언구’ 및 중원 일대 등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4 결론

기원 전후 시기인 전한 말기에 편찬된 중국 최초의 ‘지역언어 자료’로 평가되는 『방언』은 西周 이래 통치에 참고할 수 있는 언어를 수집하던 전통을 이어받아 황제 成帝의 명을 받은 언어학자 양옹이 전한 왕조 영토 내에서 사용 중인 漢語 및 당시 전

26) 朝鮮泐水·(北)燕지역 공통단어 2레에서 ‘北燕’의 誤記라는 견해(周祖謨 1993, 19쪽)를 인정하지 않고 朝鮮泐水·燕지역의 공통단어로만 볼 경우를 말한다.

한의 영역에 편입되어 있던 南越 및 고조선 등 非漢族系 민족 지역의 말까지 27년 동안 수집, 편찬한 어휘자료집이다. 이와 관련, 그간 여러 선행연구에서 『방언』 내 고조선과 역사적 관련이 깊은 朝鮮瀕水지역 및 北燕지역을 하나의 별도 언어구역(‘北燕·朝鮮 方言區’)으로 분류하였으며 다만 해당 언어구역에서 사용된 어휘 숫자를 60례(표기문자 기준)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방언』 본문의 문맥, 역대 주요 『방언』 판본의 교감 내용 그리고 현대 언어학에서 『방언』의 언어구역별 어휘를 선정하여 분류한 기준 등에 의하면, 『방언』의 ‘북연·조선 방언구’ 어휘에는 기존에 인식된 60례(표기문자 기준) 이외에 黻 1례가 추가되어야 타당하다. 『방언』 권8 제4조에 수록된 ‘알을 품은 닭’이라는 뜻의 抱 및 ‘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溲은 ‘북연·조선 방언구’ 어휘에 포함하면서, 같은 조목에 함께 수록된 ‘새끼 새와 병아리’라는 뜻의 黻는 이와 달리 해당 언어구역 어휘 분류에서 제외하고 분석 대상에서도 배제할 언어학적 이유 및 논거를 찾기 어렵다.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에서만 사용된 黻은 이 단어를 표기한 同形漢字가 『방언』 이전 중국 문헌에서도 ‘새끼 새와 병아리’라는 의미로 쓰인 용례가 보인다. 하지만, 黻가 上古漢語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였다면, 『방언』에서 고조선의 역사적 연고지인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에서만 사용되고 바로 인접한 ‘燕·代 방언구’를 포함하여 전한의 영역 내 여타 한어 방언권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방언』 내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에서 사용된 말에는 뜻이 같지만 발음과 음절 등이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작을 이루는 소위 同訓異表記語가 전체 어휘의 약 1/3이 넘는 11쌍 22레이나 되는데, 齧는 대립되는 단어가 없이 오직 하나의 말만 수록되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방언』에 나타나는 당시 고조선 연고지의 언어 상황은 정치적 우세언어인 漢語와 기층 원주민 언어가 병용되는 ‘兩層言語(diglossia)’ 상황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燕·代 방언구’(약 2.5~5세기 간 분리) 및 북연·조선지역(약 2세기 간 분리)의 공통어휘 보전 사례처럼 고대 동아시아지역 기층 원주민의 높은 언어충성도에 비추어 보면, 齧처럼 ‘새끼 새와 병아리’ 같은 기본단어까지 고조선 합병 이래 약 1세기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외래 漢語가 기층 원주민 언어를 완전히 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王彩琴(2011) 및 정재남(2023c, 2024c)에 의하면, 『방언』 내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 전체 어휘 가운데 절반인 30례는 당시 고조선 연고지 주민들이 사용 중인 말을 발음이 유사한 한자를 발음기호로 차용하여 채록한 記音字 단어로 보았다. 하지만 齧는 일단 기존의 기음자 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여러 선행연구에서 齧가 『방언』의 언어구역별 분류 및 분석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王彩琴(2011)에 의하면, 『방언』에는 표기 문자의 뜻과 그 표기 대상이 되는 단어가 의미상으로 서로 연관되는 表義字 유형의 단어가 다수 발견된다고 하는데, 필자의 소견으로는 ‘새끼 새와 병아리’라는 뜻의 齧가 이에 부합되는 表義字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방언』의 齧(8-4)는 본래 고조선 연고지인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에서만 사용된 입말 단어이었지만,

기원 전후에 전한 왕조가 통치 참고 목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사용 중인 주민들의 말을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하여 편찬한 『방언』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발음과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한 記音字 내지 表義字이었을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방언』에 수록된 북연지역 및 조선열수지역 어휘 분류 및 연구 대상에 𪛗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새끼 새와 병아리’라는 뜻으로 고조선 연고지에서만 사용된 𪛗가 ‘기음자’ 또는 ‘표의자’ 유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포함하여, 중국 상고문헌 용례에 나타나는 𪛗가 아닌 『방언』 내 고조선 연고지에서만 사용된 입말 단어 𪛗의 언어 계통 내지 연원 그리고 후대 한국어로의 전승 여부 등을 밝히는 것은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논문 투 고 일: 2024.07.18.

□ 심 사 완 료 일: 2024.07.25.

□ 게 재 확 정 일: 2024.07.25.

부록

<표 2>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방언』 내 북연·조선지역 어휘
 목록(의미 기준 61례)

차하위 단어군 ²⁷⁾ [단어수]	『방언』 수록 단어		
	被訓語 [再構 上古音 ²⁸⁾]	條目	訓語 (뜻풀이)
朝鮮泲水 지역 단독 사용단어 [3]	倅[*drjigx]	6-31	行(다니다)
	漢漫[*hanh *muanh]	7-25	瀆(번민하다)
	眠眩[*thjin *gwian]	7-25	瀆(번민하다)
朝鮮· 北燕지역 공동단어 [6]	策[*tshjigh]	3-11	凡草木刺人(초목이 사람을 찌르는 것)
	壯[*tsrjaŋh]	3-11	凡草木刺人(초목이 사람을 찌르는 것)
	癘[*lagw]	3-12	凡飲藥傳藥而毒(마시는 약이나 바르는 약에 독이 있는 것)
	樹[*djugx]	5-36	牀(침상), 其杠(침상 가로대)
	貌[*phjiəg]	8-2	貌(맹수의 일종)
	豨[*krag]	8-5	猪(돼지)
朝鮮泲水 ·北燕 지역 공동어휘 [20]	啣[*hjuanx]	1-8	痛(아프다), 少兒泣而不止(아이 가 그치지 않고 울다)
	膊[*phak]	7-15	暴(고기를 포로 떼서 말리다, 비 밀을 드러내다, 소나 양의 오장 을 벗겨내다)
	策[*tshrik]	2-8	小(작다), 木細枝(가는 나뭇가지)
	葉輸[*hrjap *hrjug]	2-29	蠶(연약하다)

27) 정재남(2017, 2018, 2019, 2021, 2022, 2023a~d, 2024a~c)은 국내의 학계 최초로 『방언』 내 북연·조선지역 전체 어휘 60례(자형 기준)를 次下位 방언권 내지 여타 '方言區'와의 공통어 여부에 따라 8개 차하위 단어군(lexicon)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28) 본고는 東方語言學網의 '上古音查詢'(http://www.eastling.org/oc/oldage.aspx)에서 李方桂가 제시한 재구 상고음의 국제음성기호(IPA) 音價를 표시하였다. 본고의 지면 관계상 『방언』 내 북연·조선지역 어휘 60례(字形 기준)의 재구 상고음에 관한 전문학자 6명 즉, 高本漢(Klas Bernhard Johannes Karlgren), 李方桂, 王力, 白一平(William B. Baxter), 鄭張尙芳 및 潘悟云의 견해 중 李方桂 의견만 소개하였다. 다른 5인의 견해는 정재남(2019, 158~210쪽; 2024c, 413~448쪽)에서 참고할 수 있다.

	搖扇[*rjagw *hrjan]	2-34	疾(빠르다)
	掬[*kjəkʷ]	7-12	離(나누다, 분리하다)
	播[*parh]	7-12	離(나누다, 분리하다)
	魏盈[*ŋwjadh *riŋ]	7-18	怒(노하다, 화내다)
	斐盈[*gianx *riŋ]	7-18	怒(노하다, 화내다)
	樹植[*djugx *drjəgh]	7-31	立(무언가를 세우다)
	斟[*tjəm]	3-7	汁(잘 어울리다. 화합하다)
	鍤[*tiənɣ]	5-1	鍤(가마솔)
	鉞[*pjiŋɣ]	5-1	鍤(가마솔)
	抱[*bəgwɣ]	8-4	伏鷄(알을 품은 닭)
	涅[*nit]	8-4	伏鷄(알을 품은 닭), 其卵伏而未孚始化(알을 품어 아직 부화되지 않은 것)
	蟪蛄[*dəkʷ *djag]	11-16	蠃螽(거미)
	鞞角[*ŋaŋ *kruk]	4-44	履(신발의 일종)
	邛角[*ŋaŋ *kruk]	4-44	履(신발의 일종)
	甌[*drjaŋ]	5-11	罍(물독, 목이 긴 병)
	𦉳[*rjagw]	5-27	𦉳(가래, 팽이)
	椹[*duanh]	5-32	椹(나무 말뚝)
	鷓鴣[*bjiək *pjəg]	8-9	戶鳩(오디새, 삿구기)
	鷓鴣[*gwək]	8-9	戶鳩(오디새, 삿구기)
	鷓鴣[*gwək *pjəg]	8-9	戶鳩(오디새, 삿구기)
朝鮮洌水 · (北)燕 29) 지역 공통어휘 [2]	涅[*nit]	3-6	化(변화하다), 鷄伏卵而未孚始化時謂之(닭이 었드려 알을 품는데 아직 부화되지 않다가, 처음 부화되기 시작할 때를 말함)
	譚[*hwrag]	3-6	化(변화하다, 변화시키다)
朝鮮洌水 · 燕 · 代 지역 공통 어휘 [2]	盱[*hwjag]	2-5	雙(쌍, 둘, 눈)
	揚[*raŋ]	2-5	雙(쌍, 둘, 눈)

29) 周祖謨(1993, 19쪽)는 *卷8에서 北燕朝鮮洌水之間謂伏鷄曰抱, 其卵伏而未孚始化謂之涅. 라고 동일한 어휘를 설명하면서 北燕지역 어휘로 설명한 사례를 볼 때 條目 3-6의 '燕'은 '北'이 탈락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본 연구는 동 견해를 따른다.

北燕지역 단독 사용어휘 [13]	黎[*lijd]	1-18	老(늙다, 늙은이)
	稜[*gwrjik]	3-10	鷄頭(가시연, 수련과 다년초)
	班[*pran]	3-20	列(순서에 따라 나열하다)
	謹[*huan]	7-7	讓(꾸짖다, 책망하다)
	噬[*djadh]	7-13	隸(이르다, 다다르다)
	蠍蠃[*tjək *mæk]	8-10	蝙蝠(박쥐)
	祝蜒[*tjəgwh *ran]	8-15	守宮(도마뱀)
	蛆蚘[*nrjəkwh *nrjid]	11-15	蚘蜒(그리마, 마디발 동물)
	蛆蠃[*tsjag *gjag]	11-18	馬蚊(노래기)
	由[*rəgw]	6-7	輔(돕다)
	釗[*tjagw]	7-24	遠(멀다)
	侷莫[*mjəgw *mak]	7-9	強(권면하다, 노력하다)
	傑倂[*gjn ŋ *skju ŋ]	7-10	罵(욕하다)
北燕·東 齊·海岱 지역 공동어휘 [5]	盞[*gwjan]	5-4	盂(바리, 사발)
	晞[*hjəd]	7-15	曩五果之類(오곡 종류를 말하는 것)
	踉蹌[*drja ŋ *mjugh]	7-19	踉(꿀어앉다)
	隄企[*gədh *khjigx]	7-19	委癢(꿀어앉아 다리가 저린 것)
	平均[*bjian *kwjin]	7-22	賦(세금을 매기다)
北燕·中 原지역 공동어휘 [10]	京[*kja ŋ]	1-12	大(크다)
	將[*tsja ŋ]	1-12	大(크다)
	虔[*gjian]	1-16	殺(죽이다)
	墳[*bjən]	1-24	地大(땅이 크다), 凡土而高且大者(땅이 높고 큰 것)
	豐人[*phju ŋ *njin]	2-2	凡大人(큰 사람)
	臧[*tsa ŋ]	3-5	凡民男而墉婢(여자종에게 장가 간 남자), 亡奴(도망간 남자종)
	獲[*gwɾak]	3-5	女而婦奴(남자종에게 시집간 여자), 亡婢(도망간 여자 종)
	櫛[*srjəkwh]	5-24	櫛(말구유)
	阜[*dzəgwɿ]	5-24	櫛(말구유)
膺[*ljagx]	7-30	儻(메다, 등에 지다)	

참고 문헌

1. 언어자료, 사료 및 사전류

『國語』, 『史記』, 『三國志』

揚雄 著, 郭璞 注, 周祖謨 校箋(1993), 『方言校箋』, 北京: 中華書局.

揚雄 著, 郭璞 注, 華學誠 匯證(2006), 『揚雄方言校釋匯證』上·下冊, 北京: 中華書局.

揚雄 著, 郭璞 注, 戴震 疏證, 이연주·이연승 번역(2012), 『方言疏證』 전3권, 서울: 소명출판사.

揚雄 著, 錢繹 撰, 李發舜·黃建中 點校(2013), 『方言箋疏』, 北京: 中華書局.

揚雄 著, 盧文招 撰(2017), 『重校方言』,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管錫華 譯注(2014), 『爾雅』(中華經典名著全本全注全譯叢書), 北京: 中華書局.

許慎 著, 하영삼 譯注(2022), 『완역 설문해자』 전5권, 부산: 도서출판 3.

許慎 著, 段玉裁 注, 금하연·오채금 譯注(2016), 『段玉裁注 說文解字』, 영양: 일일서방

高野王 撰(1985), 『原本玉篇殘卷』, 北京: 中華書局.

高野王 撰(1987), 『大廣益會玉篇』, 北京: 中華書局.

陳彭年 撰(2017), 『鉅宋廣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丁度 撰(2017), 『集韻』 全兩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辛適 편집(2010), 『康熙字典』(最新整理本) 全六卷, 北京: 中國書店.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2008), 『漢韓大辭典』 전15권,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羅竹風 主編(2010), 『漢語大詞典』 全15권,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 단행본 연구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2019), 『역주 고조선사료집성 중국편』, 서울: 새문사.

김영환 · 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 조선 언어학 연구 총서 5』,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2018),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 揚雄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어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류렬(1990), 『조선말력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이득준 편(2001), 『조선어 력사언어학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吳吉煌(2011), 『兩漢方言詞研究-以《方言》·《說文》爲基礎』,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王智群(2011), 『《方言》與揚雄語彙學』,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王彩琴(2011), 『揚雄《方言》用字研究』,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田子馥(2015), 『中國東北漢文化史述』,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丁惟汾(1985), 『方言音釋』, 濟南: 齊魯書社.

3. 연구논문

공재석(1974), 「漢代 「方言」 중 朝鮮方音에 관하여」, 『東洋學』 5,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김양진(2018), 「고조선어와 만주어(여진어)의 비교연구」,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揚雄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어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리상호(1964), 「기원전 4세기 이전 고조선의 서단과 중심지에 대하여(하)」, 『역사과학』 3, 평양: 사회과학원.
- 박대재(2015), 「고조선의 언어구역과 燕의 동북지역」, 『先史와 古代』 43, 한국고대학회.
- 엄순천(2018), 「揚雄의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지역 단어들과 어원키어 비교」,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揚雄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어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규(2018), 「고조선어와 몽골어의 비교연구」,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 揚雄 『方言』에 수록된 고조선어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연주(2008), 「揚雄 『방언』(漢代)에 나타난 동북 지역의 언어 상황」, 『中國學報』 58, 한국중국학회.
- 이연주(2009), 「揚雄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 고찰」, 『中國語文學』 54, 중국어문학연구회.
- 이연주(2018), 「揚雄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지역 어휘와 이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 揚雄 『방언』에 수록된 고조선어 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현숙(1995), 「『方言』中の 朝鮮涑水之間語彙釋例研究」, 『中語中文學』 17, 한국중어중문학회.
- 정재남(2017), 「揚雄 『方言』에 수록된 北燕어휘 고찰」, 『동아시아 고대학』 47, 동아시아고대학회.
- 정재남(2018), 「漢代 『方言』 내 東北지역 어휘의 언어적 연원 및 정체성 탐구 試論 : 『方言』에 수록된 東北지역 어휘와 『爾雅』 同一漢字 어휘의 비교분석」, 『동아시아고대학』 51, 동아시아고대학회.
- 정재남(2019), 「揚雄 『方言』에 수록된 漢代 東北지역 어휘 研究 : 朝鮮·北燕·燕·代지역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남(2021), 「언어로 본 고조선의 영역 : 漢代『方言』에 수록된 朝鮮·北燕지역 어휘의 정체성 및 지리적 범위 탐구」, 『고조선단군학』 44, 고조선단군학회.
- 정재남(2022), 「漢代『方言』의 朝鮮·洌水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49, 고조선단군학회.
- 정재남(2023a), 「漢代『方言』에 수록된 朝鮮洌水지역 어휘의 轉語 분석」, 『동아시아고대학』 69, 동아시아고대학회, 2023.
- 정재남(2023b), 「漢代『方言』의 北燕지역 어휘의 언어정체성 분석」, 『고조선단군학』 50, 고조선단군학회.
- 정재남(2023c), 「漢代『方言』의 北燕·朝鮮지역 기음자 단어 분석」, 『중국언어연구』 107, 한국중국언어학회.
- 정재남(2023d), 「漢代『方言』에 수록된 北燕·朝鮮洌水지역 同訓異表記語 분석」, 『동아시아고대학』 71, 동아시아고대학회.
- 정재남(2024a), 「새로운 고대국어 어휘 자료로서 漢代 辭典『方言』 연구의 타당성 검토」, 『국어사학회 2023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국어사연구 방법의 다각화』, 국어사학회.
- 정재남(2024b), 「『說文解字』 및 『玉篇』 내 고조선지역 유래가 명기된 어휘의 淵源 분석: 漢代『方言』 訓語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12, 한국중국언어학회
- 정재남(2024c), 「漢代 北燕·朝鮮지역 어휘 연구 : 揚雄『方言』에 수록된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남·이도학·변지원(2019), 「중국 漢代 방언사전『方言』에 수록된 北燕지역 어휘와 고대 몽골어의 친연관계 고찰」, 『몽골학』 57, 한국몽골학회, 2019.
- 홍기문(1964), 「중국 고문헌의 기록과 조선어의 계통 문제」, 『고등교육』 7.
- 盧國堯(1992), 「方言的涵義」, 『語言教學與研究』, 語言教學與研究編輯部.

- 林語堂(1927), 「前漢方音區域考」, 『語言學論叢』, 上海: 上海開明書店.
- 王彩琴(2006), 「揚雄『方言』借音字考」,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46-1, 河南大學.
- 王彩琴(2010), 「揚雄『方言』中的記音字與方言詞」, 『河南社會科學』
11, 河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 陳榴(2005), 「《方言》中“朝鮮”語詞的解讀」, 『中國語文學』 45, 中
國語文學研究會.

**A review on the spoken word 鷄 used only in the
historical activity area of Gojoseon Kingdom
registered in *FangYan***

Chung, Jae-nam

Doctor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ongguk University

FangYan, the oldest “local words material” compiled by linguist Yang Xiobg in China at the end of the Han Dynasty, included lexicon from Northern Yan region and Joseon-Ryeolsu region, which were historical areas of the Gojoseon Kingdom that merged to the Han dynasty by war about a century ago.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vocabulary of each individual language area in *FangYan* to be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one word 鷄 case should be added to the vocabulary category of the Gojoseon-related area registered in *FangYan*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known 60 word cases (based on notation).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linguistic reasons and arguments that exclude the word 鷄 for “baby birds and chicks” written together in the same article while analyzing the word 抱 for “an egg-bearing chicken” and the word 涅 for “not

yet hatched with eggs” included in Article 4, volume 8 of *FangYan* as a common word used in Northern Yan region and Joseon-Ryeolsu region.

The word 𪚩 could be seen as a word of ‘Chinese phonetic transcription character’ or ‘epistemic character’, which was registered by Yang Xiong, the editor of *FangYan*, borrowing Chinese characters that had a same or similar meaning and pronunciation of the colloquial word, which was used only in Northern Yan region and Joseon-Ryeolsu region, the historical activity region of Gojoseon kingdom.

| **Key Words** | Yang Xing(揚雄), *FangYan*(方言), Kou(𪚩), Joseon-Ryeolsu(朝鮮洌水), Northern Yan(北燕), Gojoseon kingdom, diglossia, Chinese phonetic transcription character(記音字), epistemic character(表義字)